

I. '소명으로서의 분열'

1. 조은 선생님의 작업을 분석하면서 저자가 '소명으로서의 분열'을 언급하시지만, 저자 자신이 원칙을 자신의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것 같다. 그것은 현장과 '풍경' 사이의 분열, 문학과 사회학의 분열, 이미지와 언어의 분열, 탐구와 묘사의 분열, 혹은 작가와 '글쟁이' 사이의 분열로서 이와 같은 "분열선들이 구성하는 차이의 사회학"(421쪽)이 저자가 추구하는 사회학일 것이다. 이와 같은 분열은 저자의 글쓰기 스타일에도 잘 나타난다. 보다 이론적인 탐구로부터 현장에 가까이 가려는 에세이적 묘사(특히, 작가론과 작품론) 사이의 오고감은 이 책을 더욱 아름답고 유니크하게 한다.

2. 저자는 '파상'(破像)의 문제의식을 통하여 무엇보다 "현실을 직시"(11쪽)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근대성의 여러 이념적, 제도적, 미학적, 윤리적, 정치적 건축물들이 깨져 변형되는 구조적 파상의 시대"(10쪽)이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저자는 인문적 사유가 흔히 보여주는 "자신의 무능과 한가함, 허황된 논리의 미로, 현실과 무관한 공허한 관념의 유희 속에서 정작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근원적 문제를 사유하지 못한, 일종의 직무유기를 참담하게"(45쪽) 반성하고자 한다. 이 입장은 저자가 작품론을 쓴 박솔뫼가 '정치'에 대해 성찰하며 던진 질문에 잘 나타나 있다. "...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본 사람인가? 내가 본 눈동자는 누구의 것인가?"(339쪽)

3. 현장을 "기록, 증언, 전달할 인간주체"가 요청되며 "고양된 "인식가능성의 지금에 머물면서"(벤야민), 글쓰기 속에서 파상의 폐허를 응시하고, 거기에서 희망의 흔적들을 찾아 드러내야 하는"(242쪽), 벤야민에게 있어서의 '역사의 천사'(14쪽)의 역할을 저자는 능히 감당하고자 한다. 따라서 저자에게 있어서 "꿈과 꿈 사이에 펼쳐진 이 가위놀림과 환멸을 있는 그대로 겪어내는 힘, 그리고 희망의 근거를 그 파편들 속에서 찾아내려는 자세, 그것이 바로 파상력의 핵심이다".(12쪽).

4. 이 현장은 이제 '3·11 동일본 대진재'이고, '세월호'이며, 우리들의 친밀성의 영역의 근간을 이루는 '아이'고, 모성적 공간인 '골목길'이며, '가족'이며, 이 친밀성의 영역들이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으로 이어진다. 또한 저자는 이 시대의 핵심 쟁점중의 하나인 청년세대의 문제를 '생존'과 '탈존'의 문제제기를 통하여 분석한다.

II. 파상력, 마음, 풍경, 꿈, 얼굴, 탈존, 합정성, 합의성, ...

1. 자신의 동시대인의 증인으로서 현장증언을 행하고자하는 저자로서는 이 의도에 상응하는 새로운 개념들을 제안하는 지속적인 용기와 참신한 노력을 보여준다. 파상력, 마음, 풍경, 꿈, 얼굴, 탈존, 합정성, 합의성 등이 저자에 의해 제안되는 새로운 개념들이거나 연구대상들이다. 그런데 이 새로운 개념들은 인문학에 인식론적이고 방법론적인 여러 '전환들'(turn)을 가져올 만한 개념들일 터인데, 저자는 이 개념들을 고전적인 저자들로부터 동시대의 저자들에 이르기

까지, 그리고 철학으로부터 예술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분야들을 넘나들며 그들의 영감과 이론적 자원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측면이 또한 이 책의 독해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배움의 즐거움이면서 학문적인 정진을 독려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2. 이는, 명확히 언어화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핵심적이고 총체적인 느낌 혹은 감(感)의 포착과 관련이 있는 것 같으며, 더 나아가서는 무엇이 “절대적’ 문제’이고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절재를 절대로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47-8쪽)을 배양하는 일과 관련된다. 예컨대, 신경숙의 작품에서의,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대한, “친밀성의 영역을 배회하는 불길한 욕동의 현존”(168쪽)에 대한 포착이 이와 관련될 것이며, 이 시대에 자녀를 갖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의 근저에 있을, “이제 아이를 낳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이 현명한 행위가 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들을 이 세상에 낳았다는 무책임함 사실을 사죄해야 할지도 모르는 시간”으로서의 미래에 대한 직감적 예감이 또한 그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핵심 느낌’이라고 할 만한 것을 힘써 포착하고 드러냄은 이 시대의 ‘얼굴’을 파악하고 그려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저자가 분석하고 있는, 이시다 테츠야의 얼굴(「귀로」)처럼, “탈존의 심연에 빠져들어 가는 자의 얼굴”(311쪽), “탈존의 침묵과 무의미의 구멍이 얼굴의 복판에서 파상적으로 열린 듯한 저 얼굴”(312쪽)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III. ‘마음의 사회학’ 이론화

1. 몽상과 각성, 파상 등 ‘꿈’에 대한 문제의식은 다시 ‘마음’과 ‘마음의 사회학’의 문제 틀로 종합된다. 저자는 이 광활하고 깊은 영역인 ‘마음’을 개념화하고 ‘조작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실천학적’ 관점에 국한시켜 사용하기를 제안한다. 즉,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의미있는 사회적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이며, 마음의 사회학은, 저자에 의하면, “‘왜 그들은 이런 행위를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행위자들의 인지적, 정서적, 의지적 행위 능력의 복합체(마음)에서 찾는 것이다.” 이 때, 하나의 ‘힘’으로서의 마음은 “합리적 사고능력 뿐만 아니라 감정능력과 욕망능력을 모두 포괄한다”.(8쪽)

필자는 마음을 ‘실천학적 개념’으로 이론화하고, 다시 ‘합리성’, ‘합정성’, ‘합의성’으로 구분하여 이론화하는 데에서 이 문제의식을 사회학적으로 조작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이론적, 인식론적, 그리고 방법론적 차원의 놀라운 노력을 경주한다. 늘 근본적인 탐구대상으로 인지하였지만, 효과적인 조작적 개념들의 부재로 그 탐구에 어려움을 겪었던 마음’의 영역을 이렇게 이론화함으로써 필자는 동료와 후학들에게 매우 값진 기여를 하고 있다.

2. 이 ‘마음’에 대한 탐구는 그 구조화된 형태인 ‘마음가짐’의 탐구로 이어지며, 결국, 마음의 사회학의 대상은 ‘마음/가짐’이 된다.(529쪽) 그리고 필자는 이 마음/가짐을 사회 속에 위치시키고, 이 ‘마음/가짐’을 생산하는 힘들의 배치를 ‘마음의 레짐’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이제 후자는 다시 ‘생산’(‘장치’)과 ‘습관(혹은 아비투스)’(‘사용’), ‘소통’(‘이념’)과 ‘표현’(‘풍경’)의 차원들로 세분화된다. 이 ‘장치’와 ‘사용’, ‘소통’과 ‘표현’의 각각의 개념화에 있어서 저자는 푸코와 부르디외, 벤야민 등의 지적 통찰을 자유롭게 자기 것으로 끌어온다.

이와 같은 고전적 저자들의 응용과 그 영감의 심화는 베버의 ‘청교도 윤리’에 대한, 단지 재현

차원의 해석이 아닌 의지와 정서차원의 해석, 그리고 부르디외의 ‘일루지오’ 개념의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 ‘꿈-자본’ 개념을 위치시키는 점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 이론화에 있어서 저자는 놀랄만한 종합정신과 창의적 노력을 보여주며, 각 ‘발견’의 순간을 저자가 즐기고 있음을 독자 또한 엿볼 수 있다.

IV. 질문

1. 저자는 ‘마음’과 ‘마음가짐’의 동시적 상호요청을 ‘마음/가짐’으로 적절히 개념화하고 있다 (514쪽). 저자는 ‘마음’을, ‘용’(用), 혹은 ‘질료’, ‘마음가짐’을 ‘체’(體)은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마음가짐’의 탐구를 위해서는 동양의, 한국의, 예컨대, ‘전통’과 만나야 할 것 같은데, 저자는 ‘전통’과의 연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는 동시에 일종의 한국 ‘마음학 사전’ 작업 같은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cf. 정수복,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2. ‘마음의 레짐’의 요소들로서 ‘생산’(‘장치’)과 ‘습관(혹은 아비투스)’(‘사용’), ‘소통’(‘이념’)과 ‘표현’(‘풍경’)의 요소들을 제안하셨는데, 이것들에 보다 ‘시간적 차원’을 도입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예컨대 질베르 뒤랑은 상상계의 하나의 흐름이 ‘창건의 수준’에서는 하나의 ‘풍경’ 혹은 특유한 ‘집단무의식’으로서 우리를 감싸며, 점차 그 속에서 주된 행위자들이 그 ‘풍경’을 자기 것으로 하여 행동하게 되며, 이렇게 본다면 주된 행위자들이 만들어내는 이념이나 프로그램 등의 ‘합리화의 수준’은 시간적으로 ‘차후’의 일이 된다. 이 아이디어는 ‘마음의 레짐’의 이론화보다는 섬세함이 떨어지지만, 중장기적인 ‘변화’의 국면과 연결시켜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다. 마지막 이론화인 537쪽의 그림인 ‘설명논리’와도 연결하여 종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